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0. 2. 7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네덜란드, 2014년 말레이시아 여객기테러 피의자 4명 기소
 - 2.3 네덜란드 검찰은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말레이시아 여객기를 미사일로 격추(탑승자 298명 전원 사망)시킨 러시아인 3명과 우크라이나인 1명을 살인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발표
 - * 국제조사팀은 우크라이나 내 親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에 의한 테러로 결론
- 영, '테러범 자동 가석방 중단' 긴급 입법 추진
 - 2.3 「버클랜드」 영 법무장관은 자동 가석방 제도*로 풀려난 테러범들이 잇따라 흉기 테러를 저지르자, 현재 수감 중인 테러범에게 적용 가능한 '테러범 자동 가석방 방지'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
 - * 영 정부는 2000년대 중반 교도소 과밀 현상 등을 막기 위해 징역형을 받은 죄수가 형기의 절반을 복역하면 심사를 받지 않아도 석방될 수 있는 법을 도입

미주

- 「트럼프」 대통령, 신년 국정연설에서 테러에 대한 강경 대응 시사
 - 2.4 「트럼프」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美 정부의 강력한 국가안보 유지 노력과 극단주의 이슬람테러에 대한 대응을 강조한데 이어, “누구도 미국의 정의를 무너뜨릴 수 없으며, 만약 미국 시민을 공격한다면 목숨을 잃게 된다”고 강력 경고
- 美 국방부, 「알-바그다디」 제거 불구 ISIS 조직 건재 평가
 - 2.5 美 국방부는 ISIS 수괴 「알-바그다디」 제거작전이 테러단체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았으며, 현재도 ISIS 지휘체계·비밀 네트워크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터키의 시리아 침공으로 인한 혼란을 틈타 조직을 재건하고 있다고 분석

중 동

○ 이라크, 미국과 'ISIS 대항 연합작전' 재개

- 1.31 이라크군은 최근 對美관계 변화에도 불구하고 ISIS 격퇴를 위해 미군과 연합작전을 재개*한다고 발표했으며, 미국도 이라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 표명
- * ISIS와 전투시 항공자산 등 미군 지원이 절실하다는 이라크군 내부 평가에 기반

○ 아랍연맹(AL)*, 美 '중동평화안' 만장일치로 거부

- 2.1 AL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美 '중동평화안'을 보이콧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하였으며, 「아바스」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美·이스라엘과 모든 관계를 단절할 것이라고 천명
- * '45.3 중동의 평화·안전 확보 및 주권·독립 수호를 위해 창설된 지역협력기구

아 · 태평양

○ 파키스탄, 사법기관 테러 모의 용의자 3명 검거

- 2.4 파키스탄 대테러국(CTD)은 파이살라바드市에 테러범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, 사법기관에 대한 폭탄테러를 계획한 파키스탄 탈레반(TTP) 조직원 3명을 검거하였다고 발표
- * 폭발성 물질·안전퓨즈·기폭장치 3개·권총 2개·실탄 10발 압수

아프리카

○ 리비아 인접국, 리비아 내전 해결을 위한 '부족 회의' 제안

- 2.2 AP통신은 「압델마지드 테분」 알제리 대통령과 「카이스 사예드」 튀니지 대통령의 정상회담 後 리비아内の 갈등과 전투는 외세개입·무기반입 없이 스스로 해결할 것을 강조하면서, 유엔의 지원下에 모든 부족들이 참여하는 汎연합 회의를 제안하였다고 보도
- * 리비아 서쪽은 통합정부군(터키·카타르·이탈리아 지원), 동쪽은 리비아 국민군(이집트·아랍에미리트·프랑스·러시아 지원)이 점령한 채 복잡한 양상으로 내전 지속

伊 극우당원, 난민 대상 총기난사

- '18.2.3 이탈리아 중부 마르케주 마체라타 도심에서 극우 성향의 伊 백인 남성(28세)*이 2시간 동안 차량으로 이동하며 흑인 대상 무차별 총격을 가해 7명 부상
 - * '17.6 지방선거에 반난민 정책을 앞세우는 극우정당(동맹당) 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
 - 용의자는 범행 후 초록색·흰색·빨강색의 伊 삼색기를 어깨에 두른 채 '파시스트식 경례'를 실시
- 경찰은 총격 후 도주한 차량을 추격한 끝에 소형 권총을 소지하고 있던 용의자를 체포하였으며, 난민을 겨냥한 계획된 '증오범죄*'로 규정
 - * 1.31 同 지역에서 18세 여성이 나이지리아 난민에게 피살된 사건 발생
- 사건 직후, 「마테오 살비니」 동맹당 대표는 “이번 범행이 당과 무관하다며, 정부의 통제되지 않은 난민정책이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다”고 집권 민주당을 비난
- 「파올로 젠틸로니」 伊총리는 “증오와 폭력으로 이탈리아를 분열시킬 수 없으며 폭력을 획책하는 그 누구라도 엄중 처벌할 것”이라고 강조

< 아프간 재건 특별감사관실(SIGAR) >

- (설 립) '08. 美 의회가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투입되는 재정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해 설립
 - * 2008 회계연도 美 국방수권법 1229조 권한에 의거
- (임 무) ① 미국이 지원하는 재건프로그램의 경제와 효율성 증진
 ② 독립적, 객관적, 전략적인 감사·검사·조사를 통해서 자금의 낭비·남용·사기 등을 탐지하고 예방
 - * 美 공법(110-181)에 의거 SIGAR이 분기별로 보고서를 작성 후 의회에 제출
- (편 성) 특별감사관(John F. Sopko) 등 197명
- (협 조) 美 국방부 감사관실, 美 국무부 감사관실, 美 국제개발청 감사관실
- (주요활동) 재건에 투입된 예산(1325억6000만 달러)에 대한 감사 및 추적(19.9.30 기준)
 - ① 안전보장(825억5000만 달러) ② 거버넌스 및 개발(344억6000만 달러)
 - ③ 인도주의적 지원(38억5000만 달러) ④ 민사작전(117억 달러)